

難經中 脈學條에 關한 研究

李秉書 · 金容辰 · 尹暢烈*

I. 緒論

正確한 診斷을 해야만 바른 治療를 할 수 있다는 意味에서 診斷은 醫學에 있어서 매우 重要하다. 韓醫學界에서도 先人들이 不斷한 努力으로 四診의 體系를 세우고 이에 입각한 治療方法들을 研究하였고 現在도 持續的으로 發展하고 있다. 따라서 바른 治療를 위해서는 四診에 대한 깊은 理解가 필요하며, 그 중 切脈은 四診中 하나로서 正確한 診斷을 위해서 必須 不可缺한 手段이다.

이에 診斷學의 發展史에 대해 簡略히 살펴보면 《黃帝內經》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診法이 있었는데 첫째는, 12經의 動靜을 觀察하는 法이고¹⁾, 둘째는 三部九候 診斷法이고²⁾, 셋째는 人迎氣口脈法이고³⁾, 넷째는 氣口脈診法이고⁴⁾, 다섯째는 尺膚 診斷法⁵⁾이다. 그 후 《難經》에서는 診斷에 있어서 氣口를 매우 重要示여겨 《內經》의 三部九候를 氣口部位의 寸關尺 三部와 每部를 寸關尺 三候로 解釋하였는데, 그 內容을 보면 寸口에서 五臟六腑의 病變을 診斷할 수 있는 根據 및 寸關尺部位의 形成 原理, 寸關尺에의 臟腑配合의 原理, 脈氣와 原氣와의 關係, 脈의 陰陽虛實, 四時에 따른 正常脈, 五臟絕脈, 脈과 尺膚와의 關係, 五臟疾病의 脈과 症狀, 男女脈의 診脈上差異, 形病과 脈病의 相關性,

脈의 輕重診法, 氣病과 血病等 아주 자세하게 診脈法의 全般에 걸쳐 敘述하였다. 또 東漢의 張機는 그의 著書 《傷寒雜病論》에서 大多數의 疾病에 모두 脈과 證을 連繫시켜 論함으로서 脈과 證을 合參하고 二者를 아울러 重要示하는 診斷原則을 創立하였고, 魏의 太醫令이었던 王叔和는 《內經》 《難經》 및 扁鵲 華佗 張仲景과 關聯된 文獻에서 拔萃하여 中國 現存의 論脈全書인 《脈經》을 著述하였는데 三國以前의 診斷에 관한 資料를 保存하고 있다는 점에서 重要的 價値가 있다. 특히 그는 脈을 24種⁶⁾으로 分類하고 脈象에 대

2) 그 部位는 頭部의 兩額 兩頰 耳前, 手部의 太陰 陽明 少陰, 足部의 厥陰 少陰 太陰의 動脈이고, 主하는 病變은 頭部는 口角 口齒 耳目의 病變을, 手部는 心 肺 胸中의 病變을, 足部는 肝 腎 脾胃의 病變을 反映한다.

3) 人迎은 頸部兩側에 있고, 氣口는 手太陰脈 搏動處이다. 《靈樞》 四時氣篇에 “氣口候陰 人迎候陽”, 禁服篇에 “寸口主中人迎主外”라 함.

4) 《素問》 五臟別論에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于氣口”라 하고 《素問》 脈要精微論에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 中附上左外以候肝 內以候鬲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膻中.”이라하여 《難經》以下 韓醫學 脈診方法이 이로부터 많은 影響을 받았다.

5) 脈의 變化와 尺部 皮膚의 變化를 서로 對照하는 診法이다. 《靈樞》 論疾診 尺篇에 “脈急者 尺之皮膚亦急, 脈緩者 尺之皮膚亦緩, 脈小者 尺之皮膚亦減而少氣…….”라 하고, “尺膚熱盛 脈盛躁者 病溫也, 尺膚寒 其脈小者 泄 少氣”라 함.

6) 浮, 芤, 洪, 滑, 數, 促, 弦, 緊, 沈, 伏, 革, 實, 微, 澁, 細, 軟, 弱, 虛, 散, 緩, 遲, 結, 代, 動으로 분류함.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史學教室

1) 《素問》 方盛衰論에 “診有大方……按脈動靜”, 《靈樞》 經脈篇에 “脈之卒然 動者 皆邪氣居之”, “是動則病”이라 했는데 이것은 三部九候脈法에 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해 처음으로 明確하게 敘述하고 있다. 한편, 六朝人 高陽生에 의해 撰하여진 《脈訣》은 內容이 簡單하고 歌訣로 되어 있어 實際臨床醫에게 많은 影響을 미쳤다. 宋代 朱肱은 그의 著書 《南陽活人書》 第2卷에서 脈診과 證候의 合參을 매우 重要示하였으며 診法은 氣口나 人迎을 모두 寸口에서 診하고 兼하여 太谿와 衝陽穴을 診하였다. 脈象은 七表⁷⁾ 八裏⁸⁾ 및 結 促 代의 18脈象으로 分類하였는데 脈象을 表裏陰陽으로 나누는 方法은 後世 論脈의 綱領이 되었다. 明代에 들어 李時珍은 《瀕湖脈學》을 그의 저서 《本草綱目》의 뒤에 붙여 傳하였는데 脈을 27種으로 나누어 먼저 《脈經》을 引用하고 다음 《素問》과 各家가 말한 脈象을 引用하였으며 體狀詩, 相類詩, 主病詩로 나누어 敘述하였는데 叔和가 大小腸을 兩寸에 配合한데 反해 瀕湖는 小腸을 左尺에 大腸을 右尺에 配屬한 것이 다르다. 宋代 崔嘉彦의 《四言學要》와 《脈訣考證》 또한 《本草綱目》의 附錄으로 실었는데, 《四言學要》는 簡明하여 工夫하기 쉬워서 이 後 脈訣을 대신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明代 張介賓은 《景岳全書》 脈神章에서 內經以下 諸家の 脈診에 관한 論述을 紹介하였고, 李梴은 《內經》 《難經》을 爲主로 하고 仲景의 《傷寒》《金匱》와 丹溪의 《脈圖》 叔和의 《脈經》 高陽生の 《脈訣》 虞搏의 《醫學正傳》과 《醫學權輿》를 參考하여 《醫學入門》 診脈條를 整理하였는데 七表 八裏 九道の 27脈⁹⁾으로 分類하였고 脈의 全般에 걸쳐 廣範圍하게 論하여 現在까지 많이 읽혀지고 있다.¹⁰⁾ 明清代의 李中梓는 그의 《診家正眼》에서 叔和의 24脈을 補充하여 29脈¹¹⁾으로 擴充하고 每脈에 體狀, 主病, 兼脈을 記하였다. 그 후 明清代 張璐는 得心應手를 強調하여 《診宗三昧》를 著述하였다.¹²⁾ 이 外

에도 수 많은 醫家들이 각자의 經驗에 비추어 脈을 整理하였는데 이것은 그 만큼 診脈學이 韓醫學에 있어서 매우 重要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¹³⁾

특히 《難經》은 《內經》을 이어 後世 脈學研究의 礎石을 이루었다. 《難經》이 맨 처음 보이는 것은 《傷寒論》의 自序에서 引用한 書籍으로서 紹介한 것인데 그 後로 많은 註釋本들을 통하여 研究가 進行되어져 왔으며, 唐以前에는 楊玄操의 《難經注釋》등이 있었고, 宋代에는 丁德用的 《補注難經》, 虞庶의 《難經注》등이 있었으며, 金代에는 王宗正의 《難經疏義》, 紀天錫의 《集注難經》등이 있었으나 모두 전해지지 않으며, 後代에 나온 註釋書에 引用되어 보이는 境遇가 있을 따름이다. 現存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註釋書로는 元代의 滑壽가 지은 《難經本義》이다. 그 後에 明清代를 거치면서, 張世賢의 《圖註八十一難經》, 丁錦의 《古本難經闡注》, 徐大椿의 《難經經釋》, 黃元御의 《難經懸解》, 葉霖의 《難經正義》 등

8) 八裏: 微, 沈, 緩, 澹, 遲, 伏, 濡, 弱.

9) 七表: 浮, 芤, 滑, 實, 弦, 緊, 洪.

八裏: 微, 沈, 緩, 澹, 遲, 伏, 濡, 弱.

九道: 細, 數, 動, 虛, 促, 結, 散, 代, 革

여기에 長短大三脈을 합쳐 27脈으로 分類하였다.

10)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96.

11) “叔和脈經에 主論二十四種이나 若夫長短二脈은 缺而不載하고 牢革二脈은 混而不分하고 更有七至를 名極하니 卽爲疾脈이라 是指下恒見者나 又何可廢乎아”라 하여 5脈을 더 補充하였다.

12) “王氏脈經 全氏太素 多拾經語, 瀾則雜說於中 偶一展卷 不無金屑入眼之憾”이라고 하고 “紫虛四診 丹溪指掌 攬寧樞要 瀕湖脈學 士材正眼이 要皆刻舟求劍 按圖索驥之說”이라 하여 《診宗三昧》를 著述하게 된 動機를 밝히고 있다.

13)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76, 77, 95, 117, 159, 252, 256, 265, 318.

7) 七表: 浮, 芤, 滑, 實, 弦, 緊, 洪

의 많은 註釋書들이 나오게 되었다. 現代에는 主로 校勘, 白話解, 字句解에 置重하면서 古代 註釋을 基本으로한 解說書들이 나오고 있다.¹⁴⁾

《難經》은 《內經》의 理論을 整理, 說明, 要約하였기 때문에 《內經》의 理論을 研究하는데 重要한 資料로서의 役割을 할 뿐만 아니라, 그 自體로도 脈學, 經絡, 經穴, 針法 및 臟腑生理 등 韓醫學 全般에 걸친 基本的인 理論의 成立에 많은 寄與를 하였다.¹⁵⁾

특히 脈學에 있어서는 《內經》에서 크게 重要示하지 않았던 寸口脈을 매우 重要하게 다루어 寸關尺三部九候脈法¹⁶⁾, 脈과 疾病의 關係¹⁷⁾에 대해 매우 자세히 言及하여 《內經》의 理論을 發展시킨 한편 後世醫家들의 脈學研究에 指標를 設定하여 주었다.

이에 筆者는 《難經》中에서 主로 脈學에 대하여 많은 論議를 하고 있는 第一難에서 第二十二難까지를 “脈學篇”으로 分類하고¹⁸⁾, 그에 대한 國譯, 校勘 및 字句解, 難經註釋書의 懸吐 및 現代 解說書의 研究를 通하여 體系的인 研究를 試圖하였다. 本 論考가 《難經》脈學의 理論整理 및 臨床活用に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研究에 着手하였다.

이번 發表에서는 全體 脈學篇中 主로 旺脈에 關해 說明하고 있는 七難과 寸口脈平而死的原理에 關해 說明한 八難과 臟腑의 病을 區分하는 方法에 대해 說明한 九難을 研究하여 이에 報告한다.

II. 研究方法

本文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內容을 비교, 研究하기 위하여 各 難별로 原文에 懸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解釋을 하였으

며, 校勘·字句解를 가하였고 各家注를 인용하여 懸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各 難에 關한 考察整理를 하였다.

가.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삼았다.

나. 懸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解釋은 原文의 懸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위주로 하되 各 註釋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內容을 위주로 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다.

라. 校勘은 各 引用文獻 중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였다.

마. 字句解는 原文 중에서 難解한 부분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의견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위주로 비교 說明하였다.

바. 各家注는 아래에 제시할 引用文獻의 註釋을 시대순으로 懸吐하여 제시하였고, 懸吐 이외에 註釋 內容의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脚注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단 中國의 문헌을 앞에 제시한 후에 日本의 文獻들을 제시하였다.

15) 凌耀星, 上揭書, pp.147-150.

16) 第一難: 寸口脈과 經脈榮衛度數, 第二難: 切脈의 部位-氣口, 第四難: 脈과 陰陽, 第五難: 診脈의 輕重指法, 第六難: 脈의 陰陽虛實, 第七難: 旺脈, 第十三難: 尺膚聲色臭味와 脈과의 關係, 第十八難: 寸關尺과 臟腑配合의 原理, 第二十難: 脈의 伏匿.

17) 第三難: 尺寸太過不及의 反常脈象, 第八難: 寸口脈이 正常이면서 死하는 原理, 第九難: 脈象에 따른 臟과 腑의 疾病, 第十難: 一脈十變, 第十一難: 止脈과 腎臟 原氣와의 關係, 第十四難: 損至脈의 病과 治法, 第十五難: 四時正常과 異常脈象, 第十六難: 五臟疾病의 脈象, 第十七難: 脈證相應과 相反의 預後, 第十九難: 男女의 正常과 反常脈象, 第二十一難: 形病과 脈病의 關係, 第二十二難: 是動所生病.

18) 《校釋》과 《譯釋》을 根據로 分類한 것임. 《難經》에는 21難까지를, 《今釋》에는 20難까지를 脈學條로 分類하고 있음.

14)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p.160-169.

〈參考 注解書〉

| 時代 | 著 者 | 書 籍 | 備 考 |
|----|--------|-------------|----------------|
| 元 | 滑壽 | 《難經本義》 | 이하 《本義》라고 한다. |
| 明 | 王九思 | 《難經集注》 | 이하 《集注》라고 한다. |
| | 張世賢 | 《校訂圖註難經》 | 이하 《圖註》라고 한다. |
| 清 | 徐大椿 | 《難經經釋》 | 이하 《經釋》이라고 한다. |
| | 黃元御 | 《難經懸解》 | 이하 《懸解》라고 한다. |
| | 丁錦 | 《古本難經闡注》 | 이하 《闡注》라고 한다. |
| | 葉霖 | 《難經正義》 | 이하 《正義》라고 한다. |
| 民國 | 蔡陸仙 | 《中國醫學匯海·難經》 | 이하 《匯海》라고 한다. |
| 中國 | 南京中醫學院 | 《難經譯釋》 | 이하 《譯釋》이라고 한다. |
| | 南京中醫學院 | 《難經校釋》 | 이하 《校釋》이라고 한다. |
| | 凌耀星 | 《難經校注》 | 이하 《校注》라고 한다. |
| | 王洪圖 | 《難經》 | 이하 《中譯》이라고 한다. |
| 臺灣 | 唐湘清 | 《難經今釋》 | 이하 《今釋》이라고 한다. |
| | 黃維三 | 《難經發揮》 | 이하 《發揮》라고 한다. |
| 日本 | 丹波元胤 | 《難經疏證》 | 이하 《疏證》이라고 한다. |
| | 膝萬卿 | 《難經古義》 | 이하 《古義》라고 한다. |
| | 加藤宗博 | 《虛經衷腋》 | 이하 《衷腋》이라고 한다. |
| | 本間祥白 | 《難經之研究》 | 이하 《研究》라고 한다. |

사. 考察은 各家注의 내용들을 토대로 각 難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아. 考察 중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설명과 各家에 대한 해설이나 注釋의 보충설명은 脚註로 처리하였다. (各家에 대한 설명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참고하였다.)

자.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 校勘은 < >, 字句解는 (), 各家注는 [], 脚注는 1로 표시하였다.

차. 本 論考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引用文獻의 注釋 편차를 바꾸기도 하였다. 단, 전체적인 文意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카. 強調해야 할 文句가 句인 경우에는 ' '로 強調하였고 節인 경우는 “ ”로 強調하였다.

다. 또한 理解를 돕기 위해 該當 難의 처음에 《難經譯釋》의 目次에 根據하여 제목을 붙였고 原文의 아래에 해당난과 同一하거나 內容이 類似한 《內經》의 部

分을 言及하였다.

本 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注解書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각 注釋書의 시대와 순서는 千柄泰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중 “難經의 注解書 目錄” 19)을 참조하였다.

III. 研究內容

第七難(論旺脈)

【原文】

七難에 曰 經⁽¹⁾에言 少陽之至는 乍⁽²⁾大乍小하고 乍短乍長하며 陽明之至는 浮大而短하며 太陽之至는 洪大而長하며 太陰之至는 緊大而長하며 少陰之至는 緊細而微하며 厥陰之至는 沈短而敦하니 此六者는 是平脈耶아 將病脈耶아

然이라 皆王脈也니라

其氣는 以何月로 各王幾日고

然이라 冬至之後得甲子엔 少陽이 王하고 復得甲子엔 陽明이 王하고 復得甲子엔

19) 千柄泰, 上揭書, pp.40-42.

太陽이 王하고 復得甲子엔 太陰이 王하고 復得甲子엔 少陰이 王하고 復得甲子엔 厥陰이 王하야 王各六十日 六六三百六十日 로 以成一歲하니 此는 三陽三陰之王時日 大要也니라. (《素問·平人氣象論》의 내용과 相似함.)

【解釋】

七難에서 말하기를 經에 이르기를 少陽脈은 컷다 작았다하며 짧았다 길었다 하고, 陽明脈은 浮大하면서 短하고, 太陽脈은 洪大하면서 長하고, 太陰脈은 緊大하면서 長하며, 少陰脈은 緊細하면서 微하고, 厥陰脈은 沈短하면서 敦하니 이 여섯가지 脈은 正常脈입니까? 病脈입니까?

답이라. 모두 그때의 旺盛한 脈입니다.

그렇다면 그 氣運은 어느때에 旺盛합니까?

답이라 冬至로부터 뒤에 오는 甲子에는 少陽이 旺盛하고 그 후 甲子에는 陽明이 旺盛하고, 그 후 甲子에는 太陽이 旺盛하고 그 후 甲子에는 太陰이 旺盛하고 그 후 甲子에는 少陰이 旺盛하고, 그 후 甲子에는 厥陰이 旺盛하여 六十日씩 三百六十日 로 一年을 이루니 이것은 三陰三陽의 旺盛한 때의 要點입니다.

(字句解)

(1) 經: 古代醫經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 《內經》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만 어떤 경우는 考證할 수 없으니 《難經本義》에서는 “豈越人之時에 別有所謂上古文字耶아 將內經有之而 後世脫簡耶아 是不可知也”라 하고 《漢書·藝文志》에서는 원래는 醫經七種이 있었는데 保存된 것은 《黃帝內經》뿐이라고 함. 本難에서의 三陽脈은 《素問·平人氣象論》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平人氣象論》에서는 三陰脈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2) 乍: “或” 또는 “忽”의 뜻. 즉 잠깐의 뜻임.

[各家註]

《本義》²⁰⁾

六者之王은 說見下文이라

上文에 言三陽三陰之王脈하고 此言三陽三陰之王時하니 當其時則見其脈也라 曆家之說에 以上古十一月甲子로 合朔冬至爲曆元하니 蓋取夫氣朔之分齊也라 然天度之運與日月之行이 遲速不一하고 歲各有差하니 越人所謂冬至之後得甲子는 亦以此歟 是故로 氣朔之不齊와 節候之早晚이 不能常也라 故丁氏注에 謂冬至之後得甲子는 或在小寒之初 或在大寒之後하고 小陽之至 始於此하니 餘經도 各以次繼之라 紀氏 亦謂自冬至之日로 一陽始生하니 於冬至之後得甲子에 小陽脈王也라 若原其本始하야 以十一月甲子朔合冬至로 常例推之면 則小陽之王이 便當從此日始至正月中하고 餘經도 各以此繼之라 少陽之至에 陽氣尙微故로 其脈이 乍大乍小乍短乍長하고 陽明之至에 猶有陰也故로 其脈浮大而短하고 太陽之至에 陽盛而極也라 故其脈洪大而長하니 陽盛極則變而之陰矣라 故夏至後爲三陰用事之始而太陰之至에 陰氣尙微故로 其脈來緊大長하고 少陰之至에 陰漸盛也故로 其脈緊細而微하고 厥陰之至에 陰盛而極也故로 其脈沈短而敦하니 陰盛極則變而之陽也라 仍三陽用事之始也니 此則三陽三陰之王脈所以周六甲而循四時니 率皆從微以至乎著하고 自漸而趨於極하야 各有其序也라 袁氏曰春溫而夏暑하고 秋涼而冬寒故로 人六經之脈이 亦隨四時陰陽消長迭運而至也라

劉溫舒 | 曰至眞要論에 云厥陰之至에 其脈弦하고 少陰之至에 其脈鉤하고 太陰之至에 其脈沈하고 少陽之至에 大而浮하고 陽明之至에 短而澁하고 太陽之至에 大而長이라하니 有隨天地之氣卷舒也요 如春弦夏洪秋毛冬石之類則五運六氣四時 | 亦皆應之而見於脈爾라 若平人氣象論에 太陽脈

20)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至에 洪大而長하고 少陽脈至에 乍數乍疎乍短乍長하고 陽明脈至에 浮大而短이라하니 難經引之以論三陽三陰之脈者는 以陰陽始生之淺深而言之也라.

○篇首에 稱經言二字를 巧之컨대 樞素에 無所見이나 平人氣象論에 雖畧有其說而不詳하니 豈越人之時에 別有所謂上古文字耶아 將內經有之而後世脫簡耶아 是不可知也니라 後凡言經言而無所巧者도 義皆倣此라.

《集注》21)

呂曰少陽은 王正月二月하니 其氣尙微少故로 其脈來進退無常하고 陽明은 王三月四月하니 其氣始萌未盛故로 其脈來浮大而短也하고 太陽은 王五月六月하니 其氣太盛故로 其脈來洪大而長하고 太陰은 王七月八月하야 乘夏餘陽하야 陰氣未盛故로 其脈來緊大而長하고 少陰은 王九月十月하야 陽氣衰而陰氣盛故로 其脈來緊細而微也하고 厥陰은 王十一月十二月하야 陰氣盛極故로 言厥陰은 其脈來沈短以敦이라하니 敦者는 沈重也라 四時에 經一陰一陽이면 八王 이어늘 此難經에 三陽在前 三陰在後하야 其王所以不同者는 其移各異也라 難經에 謂從正月至六月은 春夏半歲니 浮陽用事故로 言三陽王在前하고 從七月至十二月은 秋冬半歲니 沈陰用事故로 言三陰在後니 謂四時陰陽夫婦之王也라

丁曰夫三陰三陽之氣王을 隨六甲以言之니 此法은 是按黃帝六節藏象論에 云天以六六之節로 成一歲라하니 其自冬至之後得甲子는 卽是盛年初之氣分也요 其甲子| 或在小寒之初 或在大寒之後는 所以少陽之氣未出陰分故로 其脈乍大乍小乍短乍長也요 復得甲子에 陽明王은 其陽明之至| 浮大而短爲二之氣니 其後始暄이나 其氣未盛이라 是故로 陽明之至| 浮大而短하고 太陽之至| 洪大而長은 復得甲子爲三之氣하

야 盛陽之分故로 太陽之至| 洪大而長也요 太陰之至| 緊大而長은 復得甲子爲四之氣하야 暑濕之分에 秋氣始生하야 乘夏餘陽故로 太陰之至| 緊大而長也요 少陰之至| 緊細而微하고 復得甲子爲五之氣하야 清切之分故로 少陰之至| 緊細而微也요 厥陰之至| 沈短而敦하고 復得甲子爲終之氣하야 盛陰之分에 水凝如石故로 厥陰之至| 沈短而敦也라 此는 三陰三陽之脈王이 隨六甲之日數故로 有此六脈之狀하니 是謂平脈也라.

《圖注》22)

經言者는 內經之言也니 後仿此라 此는 周一歲王脈也니 時乎冬至에 陰極生陽하야 陽長則陰消라 乍者는 初也며 暫也니 少陽은 乃半陽半陰故로 乍長乍大而見其陽短小而見其陰하고 陽明則陽中有陰故로 其脈浮大爲陽而短屬乎陰也로대 至於太陽하야 陽之極矣故로 洪大而長하니 洪大而長은 皆陽脈也라 夏至에 陽極生陰하니 於是에 傳之太陰하니 陰長則陽消라 太陰之脈은 陰少陽多故로 脈緊大而長하니 緊係陰而大長은 陽也요 少陰則皆陰矣故로 脈緊細而微하고 厥陰은 爲陰之盡故로 其脈沈短而敦하니 敦者는 重也라 此節에 雖稱經言이나 攷之內經컨대 未有如是之詳者也라.

平者는 不病之脈也요 病者는 病之脈也요 王者는 當令之脈也라 夫歲有十二月하고 人有十二經하니 古人이 以易十二卦로 配之하니 蓋莫不因陰陽升降之理라 歲之月也와 人之經也와 易之卦也는 如印券符合이나 然十二個月以內에 甲子有六하니 各當其時日而王各六十日하야 以成一歲라 其冬至之後之甲子는 乃首甲子也나 冬至는 乃十一月中之節이니 因月有大小成閏故로 月分節氣| 有前後之不同하니 首甲子| 定數不出十一月中之節이나 氣| 須以節氣爲生하니 勿以其分前後爲惑이라 後五甲子는

21) 王九思, 難經集注, 臺北, 臺北中和書局, 1985.

22) 丁錦, 古本難經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依次而去하니 苟或甲子 | 若遲出이라도 皆得之月이면 其歷日節氣法이 不出也라 每月卦之陰陽이 俱從下而上故로 在人之王脈이 亦從足而至手也요 且如小陽王之 首甲子六十日에 前三十日은 足少陽旺이요 後三十日은 手少陽旺也이니 各經仿此라 此係陰陽一定之法이요 萬古不易之論이니 苟明於此면 陰陽五行이 了然於胸中하리니 醫家下手診脈之際에 當其時日而得此脈則 知其不係平脈이요 亦不係病脈而知其爲王脈也라.

《經釋》23)

少陽은 陽氣 | 尙微나 雖陰未遠故로 其脈이 未定이요 陽明之陽은 已盛이나 然尙未極故로 浮大而短이요 太陽之陽은 極盛故로 洪大而長이요 至는 言其氣至而脈順也라

太陰은 爲陰之始故로 有緊象而尙有長大之陽脈也요 少陰之陰은 漸盛故로 緊細而微요 厥陰은 陰至故로 沈短而敦이니 陰脈之極也라

平脈은 本然之脈也요 病脈은 有過之脈也라

(按)所引經言은 見素問至眞要大論하니 經에 云 厥陰之至 | 其脈弦하고 少陰之至 | 其脈鉤하고 太陰之至 | 其脈沈하고 少陽之至 | 大而浮하고 陽明之至 | 短而濇하고 太陽之至 | 大而長이라하고 又平人氣象論에 太陽脈至 | 洪大而長하고 少陽脈至 | 乍數乍疎乍短乍長하고 陽明脈至 | 浮大而短이라하니 與此大同小異하니라.

王脈은 得其時而氣應生王也라

自古曆元이 皆起於冬至하니 其日이 必以甲子나 然歲周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卽有零餘하야 每歲遞差하야 至日이 不必皆當甲子라 此云冬至後得甲子者는 乃指至日之當甲子言也니 至日이 當甲子至立春後十五日하야 歷一甲하야 木氣始盛故로 曰

少陽王也라 若至日이 不當甲子면 少陽之王이 大概爲六十日이니 不復以甲子爲限이라

少陽之陽은 尙微하고 陽明은 則陽已盛하고 太陽은 則陽極盛하고 極卽陰生而太陰用事하니 太陰之陰은 尙微하고 少陰則陰已盛하고 厥陰則陰極盛하야 極則陽生하니 如是無已라

甲子至甲子卽六十日一週也라

時는 指月言이요 日은 指日數言이니 以終上文何月歲日之間이라

《正義》24)

洪脈은 似浮而大兼有力하고 舉按之則泛泛然滿三部하야 狀如水之洪流 波之湧起하며 脈來 | 大而鼓也라. 緊脈은 帶數 如切繩 如轉索하니 丹溪 | 謂如紉線이니 譬如以二股三股로 糾合爲繩호대 必旋絞而轉이라야 始得緊而成繩者 | 是也라. 細脈은 如線極細하야 三候 | 不斷不散者 | 是也라. 微脈은 似有似無하며 浮軟如散하야 重按之欲絕者 | 是也라. 上文에 言三陽三陰之旺脈하고 此言三陰三陽之旺時라 至는 言其氣至而脈應之也라. 少陽之至 | 乍大乍小乍短乍長者는 以少陽陽氣 | 尙微하야 離陰未遠 故로 其脈無定也요 陽明之至 | 浮大而短者는 陽明之陽已盛이나 然尙未極故로 浮大而短也요 太陽之至 | 洪大而長者는 太陽之陽極盛 故로 洪大而長也요 太陰之至 | 緊大而長者는 太陰爲陰之始 故로 有緊象而尙有長大陽脈也요 少陰之至 | 緊細而微者는 少陰之陰漸盛 故로 緊細而微也요 厥陰之至 | 沈短而敦者는 敦은 沈重貌니 以厥陰陰之至 故로 沈短而敦은 陰脈之極也라 此六者는 非本然之平脈이며 亦非有過之病脈이요 乃六氣應時而至之旺脈也라 首稱經言은 卽素問平人氣象論에 太陽脈至 洪大而長. 少陽脈至 乍數乍疎 乍短乍長. 陽明脈至 浮大而短之義를 引伸而

23) 徐大椿, 難經經釋, 徐靈台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2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言之也라.

古曆에 以十一月甲子合朔冬至로 爲曆元이나 然歲周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則日有零餘하야 歲各有差라 越人이 申素問六節藏象論之義하야 以六六之節成一歲하니 其自冬至之後 得甲子即是來年初之氣分이니 爲歲差之活法也라 其甲子 或在小寒之初 或在大寒之初하야 以應乎少陽之氣하니 少陽之陽은 其陽尙微라 復得甲子에 應乎陽明하니 陽明則陽已成이요 復得甲子에 應乎太陽하니 太陽則陽極盛하야 陽極則陰生 而太陰用事 故로 復得甲子에 應乎太陰하니 太陰之陰氣 尙微하고 復得甲子에 應乎少陰하니 少陰則陰已盛하고 復得甲子에 應乎厥陰하니 厥陰則陰極盛하니 陰盛則陽生이 如是無已하니 此는 三陰三陽之旺脈이 隨六甲之日數者 如此라.

按歸藏商易컨대 取用乎坤 而以十二辟卦로 候一歲十二月消息하니 亦卽乾坤二卦六爻之旁解也라 蓋乾之六陽이 自十一月建子로 冬至一陽이 始生하야 爲地雷復卦卽乾之初九爻요 十二月建丑에 二陽生爲地澤臨卦卽乾九二爻요 正月建寅에 三陽生爲地天泰卦 卽乾九三爻요 二月建卯에 四陽生 爲雷天大壯卦 卽乾九四爻요 三月建辰에 五陽生 爲澤天夬卦 卽乾九五爻요 至四月建巳에 六陽充足 而爲乾爲天 卽乾之上九爻니 此는 一年之乾卦也라. 五月建午에 夏至一陰이 生爲天風垢卦 卽坤之初六爻요 六月建未에 二陰生爲天山遯卦 卽坤六二爻요 七月建申에 三陰生하야 爲天地否卦 卽坤六三爻요 八月建酉에 四陰生爲風地觀卦 卽坤六四爻요 九月建戌에 五陰生爲山地剝卦 卽坤六五爻요 至十月建亥하야 六陰純精而爲坤爲地 卽坤之上六爻니 此는 一年之坤卦也라. 夫坤은 爲萬物之母 而能生物이나 然坤本純陰이라 必待乾하야 與之交而得其陽 然後에야 始能生萬物也라. 十二支次序에 世人이 皆以子爲首하니 因坤臨十月亥하니 坤爲純陰之卦요 陰極則陽生

故로 十一月冬至에 一陽이 升于地上이 爲地雷復也라 不知造化端倪 實不在子而在午하니 蓋天地 交而萬物生이 是乾坤交媾之初 卽爲萬物造端之始나 然交必陽禮充足 而後能交니 乾之六陽이 乃充足於四月之巳하고 次爲午 故로 乾至五月建午에 始與坤交하니 是則乾足於巳 而動於午하니 巳午皆火 故로 伏羲卦에 乾居正南하고 乾之外禮 屬火하고 乾中含蓄陰精屬金 故로 五行家言庚金의 長生이 在巳라 所謂長生者는 乃指其生之之原而言也라 乾之初 動於午하니 每年五月夏至之時에 乾上九之一陽이 巳升至天頂極高라가 不得不轉而向下하니 向下는 卽減動坤陰之氣하야 上升而交 故로 天地三交라 五月建午爲第一交요 六月未爲第二交요 七月申爲第三交니 所謂坤三索於乾也라 乾坤交而謂之索者는 以坤本純陰으로 必索於乾而後有陽이라야 始能生化也라 乾陽入坤而化爲氣하니 氣升爲雲爲雨라 蓋十二辟卦에 乾位巳火也요 坤位亥水也하야 乾與坤交하고 火入水中而化爲氣하니 以水爲質 火爲性也라 人與天地參하니 試以一碗으로 人張口氣呵之則生水라 故知氣之形은 屬水而其所以能升騰行動者則火也라 爻辭에 曰 見群龍无首하면 吉也라하니 言氣升能爲雲雨 故喻爲龍 而乾與坤三交 則乾上四五之三爻 盡入於坤 而乾上爻巳火之首 早入亥水之中하야 爲育生胚胎之兆 故로 龍之无首吉也라 此節은 言三陽三陰之六氣 與素問六微旨諸論의 主氣客氣者로 有問하니 越人謂冬至復得甲子者는 以冬至爲地雷復一陽始生之初에 應少陽甲木春升之氣 而甲子爲干支之首하야 六氣莫不由之變更 故로 用以察一歲陰陽之氣也라.

《闡注》²⁵⁾

此章은 詳言六氣之旺脈이나 然三陽三陰經之旺脈도 亦可以此類推라.

25) 丁錦, 古本難經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懸解》26)

經은 《素問·著至教論》이라. 太陽脈至에 洪大以長하고 少陽脈至에 乍數乍疏 乍短乍長하고 陽明脈至에 浮大而短이라. 舊27) 誤在平人氣象論. 王脈은 脈之得令而氣王也라.

一歲는 三百六十日이니 六氣分王이 各六十日이라. 冬至子半에 陽生하야 始得甲子하야 三陽當令하고 夏至午半에 陰生하야 始得甲子하야 三陰司氣라. 日六竟28)而周甲하고 甲六復而終歲라 《素問·六節藏象論》語. 六氣 | 分王六甲 而終一歲는 一定之數也라.

《匯海》29)

丁錦曰 此章은 群言六氣之旺脈이나 然三陰三陽之旺脈도 亦可以此類推라.

呂廣曰 少陽은 王正月二月하니 其氣 | 尙微少 故로 其脈來 | 進退無常하고 陽明은 旺三月四月하니 其氣 | 始萌未盛 故로 其脈來 | 浮大而短하고 太陽은 旺五月六月하니 其氣 | 大盛 故로 其太盛故로 其脈來 | 洪大而長하고 少陰은 旺七月八月하니 乘夏餘陽하야 陰氣未盛 故로 其脈來 | 緊大而長하고 太陰은 旺九月十月하니 陽氣衰而陰氣盛 故로 其脈來 | 緊細而微하고 厥陰은 旺十一月十二月하야 陰氣盛極 故로 言厥陰이라하니 其脈來 | 沈短而敦하니 敦者는 沈重也라.

劉溫舒曰 至眞要論에 云 厥陰之至에 其脈弦하고 少陰之至에 其脈鉤하고 太陰之至에 其脈沈하고 少陽之至에 大而浮하고 陽明之至에 短而澁하고 太陽之至에 大而長하야 亦隨天地之氣卷舒也라 如春弦夏洪秋毛冬石之類 則五運六氣 四時亦皆應之而見於脈爾라. 若平人氣象論의 太陽脈至에 洪大而長하고 少陽脈至에 乍數乍疎 乍短乍長하고 陽明脈至에 浮大而短이라하니 難經에 引之하야 以論三陰三陽之脈者는

以陰陽始生之淺深而言之也라.

徐大椿曰 自古曆元이 皆起於冬至하니 其日이 必以甲子나 然歲周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則日有零餘하야 每歲遞差하야 至日이 不必皆當甲子라. 此云冬至後得甲子者는 乃指至日之當甲子者言也니. 至日이 當甲子 則立春後十五日에 歷一甲子하야 木氣始盛 故로 曰少陽王也요 若至日이 不當甲子 則少陽之王이 大概以六十日이요 不復以甲子爲限이라.

《古義》30)

按平病死三脈外에 別有王脈하니 蓋王之爲義는 在天地則自冬至一陽來復後 每得一甲子六十日에 陽氣始動하야 以序升浮하야 至於純陽建巳月而極矣요 自夏至一陰始도 亦每六十日이니 陰氣主事하야 以次降沈하야 至於純陰建亥月而極矣라 在人經脈하야 冬至後六十日에 少陽王氣至하야 以次建乎陽明太陽하야 自裏出表하니 氣之升而浮也요 夏至後六十日에 太陰王氣至하야 以次遷于少陰厥陰하야 自外之內하니 氣之降而沈也라 蓋自冬至每六十日로 以次推之則一歲中에 王凡六變하야 似合六氣運行之道나 然六氣者는 以厥陰爲先하고 大寒節爲始則其義亦異하니 因審考之컨대 從少陽至於太陽則一陽이 動於地下而六陽이 偏於上之象이요 從太陰至於厥陰則一陰이 見於上而六陰이 極於下之象이라 故로 陽脈之王은 乃始於少陽而終於太陽하고 陰脈之王則從太陰而至厥陰者를 可以見已라 滑註는 泥後得二字하야 爲甲子로 爲冬至以後甲子之日하니 殊不知此六甲之義而統言六十日古言

26)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7) 舊 : 指舊本. 黃氏謂其著述爲 '新書' (見《素問懸解自序》) 相對而言 指《難經》之世傳本爲舊本. 下同.

28) 竟 : 《說文》“竟 終也”. 《禮記·儒行》“起居竟信其志”.

29)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30) 勝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爲然이라.

(《古義》에는 九難에, 他本에는 七難에 位置함.)

《衰腋》³¹⁾

此篇은 先述三陽三陰之王脈하고 次言三陽三陰之王時하니 當其時則見其脈也라 滑氏 | 云 曆家之說에 以上古十一月甲子合朔冬至로 爲曆元하니 蓋取夫氣朔之分齊也나 然天度之運與日月之行이 遲速不一하야 歲各有差하니 越人所謂 冬至之後得甲子 | 亦以此歟 | 저 是故로 氣朔之不齊와 節候之早晚이 不能常也라 故로 丁氏注에 謂冬至之後得甲子는 或在小寒之初 或在大寒之後하고 少陽之至 | 始於此하야 餘經이 各以次繼之라하고 紀氏 | 亦謂 自冬至之日로 一陽始生하야 於冬至之後得甲子에 少陽脈王也라하니라 若原其本始면 以十一月甲子合朔冬至로 常例推之則少陽之王이 便當從此日始하고 至正月中하야 餘經이 各以次繼之라. 少陽之至 | 陽氣尙微故로 其脈乍大乍小 乍短乍長하고 陽明之至 | 猶有陰也故로 其脈浮大而短하고 太陽之至 | 陽盛而極也故로 其脈洪大而長하고 陽盛極則變而之陰矣라 故로 夏至後爲三陰用事之始而太陰之至에 陰氣上微故로 其脈緊大而長하고 少陰之至 | 陰漸盛也故로 其脈緊細而微하고 厥陰之至 | 陰盛而極也故로 其脈沈短而數하니 陰盛則極變而之陽하니 仍三陽用事之始也라 此則三陽三陰之王脈이니 所以經六甲而循四時니 率皆從微以至乎著요 自漸而趨於極이니 各有其序也라 袁氏曰 春溫而夏暑 秋冷而冬寒 故로 人六經之脈이 亦隨四時陰陽消長하야 迭運而至也라 劉溫舒 | 曰 至眞要論에 云厥陰之至에 其脈弦하고 少陰之至에 其脈鉤하고 太陰之至에 其脈沈하고 少陽之至에 大而浮하고 陽明之至에 短而濇하고 太陽之至에 大而長은 亦隨天地之氣하야 卷舒也요 如

春弦夏洪秋毛冬石之類則五運六氣四時亦皆應之而見於脈이라 尙若平人氣象論에 太陽脈至 洪大而長 少陽脈至 乍數乍疎 乍短乍長 陽明脈至 浮大而短이라하니 難經引之하야 以論三陰三陽之脈者를 以陰陽始生之淺深而言之也라 博이 按 內經六氣運遷은 主四時五行故로 始厥陰風木 終太陽寒水하고 此篇은 主陰陽消長而陽進陰退故로 陽者 | 始少陽終陽明하고 陰者 | 始太陰終厥陰하니라.

【考察】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厥陰之至에 其脈弦하고 少陰之至에 其脈鉤하고 太陰之至에 其脈沈하고 少陽之至에 大而浮하고 陽明之至에 短而濇하고 太陽之至에 大而長이라”고 한 것은 天地之氣에 따라 인체가 卷舒함을 나타낸 것이고, 《素問·平人氣象論》에 “太陽脈至하면 洪大而長하고 少陽脈至하면 乍數乍疎 乍短乍長하고 陽明脈至하면 浮大而短”이라하니 이는 陰陽始生の 淺深으로 말한 것인 바 이를 難經에서 引用하야 三陰三陽之脈을 논한 것이다. 이에 대해 《本義》에서는 內經六氣는 四時五行을 주로하여 厥陰風木에서 시작하여 太陽寒水에서 끝나고, 此篇은 陰陽消長과 陽進陰退를 주로하여 陽은 少陽에서 시작하여 陽明에서 끝나고 陰은 太陰에서 시작하여 厥陰에서 끝난다 하였으니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三陰三陽脈의 旺盛한 時日에 대해 《經釋》에서는 “自古曆元이 皆起於冬至하니 其日이 必以甲子나 然歲周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則日有零餘하야 每歲遞差하야 至日이 不必皆當甲子라”하야 最初에는 冬至가 甲子日이엇겠지만 그 후로 반드시 甲子日이 당하지는 않으므로 甲子日에 억매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또한 “此云冬至後得甲子者는 乃指至日之當甲子者言也니 至日이 當甲子 則立春後十五日에 歷一甲子하야 木氣始盛 故로 曰少陽王也요 若

31) 加藤宗博, 盧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至日이 不當甲子 則少陽之王이 大概以六十日이요 不復以甲子爲限이라”하여 冬至日이 甲子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三陰三陽의 旺盛한 期日을 어떻게 따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古義》에서도 “滑註는 泥後得二字하여 爲甲子로 爲冬至以後甲子之日하니 殊不知此六甲之義而統言六十日古言爲然이라.”하여 少陽之氣가 始作되는 것이 冬至 후 처음 甲子日이 아니고 冬至日이며 이로부터 一年을 六等分하여 各 脈이 지배하는 것임을 強調하였으니 이說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其他의 註는 內容이 大同小異하므로 略한다.

第八難(寸口脈平而死的原理)

【原文】

八難曰 寸口⁽¹⁾脈平而死者는 何謂也오 然이라 諸十二經脈者는 皆係於生氣之原⁽²⁾이니 所謂生氣之原者는 謂十二經之根本也니 謂腎間動氣⁽³⁾也라 此五臟六腑之本이며 十二經脈之根이며 呼吸之門⁽⁴⁾이요 三焦之原이니 一名守邪之神⁽⁵⁾이라 故로 氣者는 人之根本也니 根絶則莖葉枯矣라 寸口脈平而死者는 生氣 | 獨絶於內也니라

(《素問·陰陽離合論》에 相似한 內容이 있음.)

【解釋】

八難에 말하기를 寸口脈이 正常的인데 죽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답이라. 모든 十二經脈은 生氣의 根源에 연결되어 있으니 이른 바 生氣之原이라는 것은 腎間動氣이다. 이는 五臟六腑의 根本이며 十二經脈의 뿌리이며 呼吸의 門이며 三焦의 根源이니 守邪之神이라고도 한다. 氣는 人體의 뿌리이므로 뿌리가 끊기면 줄기와 잎이 마르게 되는 것과 같은지라 寸口脈이 正常的이면서 죽는 경우는 生氣가 內部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字句解)

(1) 寸口: 여기서는 寸部를 가리킴.

(2) 系: 連繫, 連結의 뜻

生氣: 原氣 또는 元氣와 같은 意味.

原: 本源, 根源의 뜻.

(3) 腎間動氣: 兩腎의 사이에 貯藏되어진 元陽의 氣運.

(4) 呼吸之門: 呼吸機能의 關鍵으로써 “肺爲氣之主, 腎爲氣之根”으로 理解하면 됨.

(5) 守邪之神: 守는 防禦의 뜻이고, 神은 機能의 뜻이니 外邪의 侵襲을 防禦한다는 뜻이다.

[各家註]

《本義》

腎間動氣는 人所得於天以生之氣也라 腎爲子水요 位乎坎하니 北方卦也라 乃天一之數而火木金土之先也니 所以爲生氣之原 諸經之根本이요 又爲守邪之神也라 原氣 | 勝則邪不能侵하고 原氣絶則死니 如木根絶而莖葉枯矣라 故寸口脈平而死者는 以生氣獨絶於內也니라

○此篇이 與第一難之說로 義若相悖나 然各有所指也니 一難에 以寸口決死生者는 謂寸口爲脈之大會而穀氣之變見也요 此篇은 以原氣言也니 人之原氣 | 盛則生이요 原氣絶則寸口脈이 雖平이나 猶死也니 原氣는 言其體요 穀氣는 言其用也니라

《集註》

呂曰寸口脈平而死者는 非應四時脈이요 其脈狀이 若平和也라 又曰十二經이 皆係於生氣之原하니 所謂生氣之原者는 爲十二經本原也요 夫氣衝之脈者 | 起於兩腎之間하야 主氣故로 言腎間動氣 | 挾任脈上至喉咽通喘息故로 云呼吸之門이요 上係手三陰三陽爲支하고 下係足三陰三陽爲根故로 聖人이 引樹以設喻也라 其三焦之原者는 是三焦之府 | 宣行榮衛하야 邪不妄入故로 曰守邪之神也라 人以尺脈爲根本하고 寸脈莖葉하니 寸脈雖平이나 尺脈絶과 上部有脈이나 下部無脈者 | 死也라.

楊曰寸口脈平者是 應四時也라 所云死者는 尺中無脈也라 尺脈者는 人之根本이니 根本既絶則莖葉枯焉이라 然則以尺脈爲根本寸脈爲莖葉故로 引樹以爲譬也라

丁曰腎間動氣者는 謂左爲腎 右爲命門이요 命門者는 精神之所舍 元氣之所係也라 一名守邪之神者는 以命門之神이 固守邪氣하야 不得妄入하니 入則死矣라 此는 腎氣

先絶於內면 其人不病이나 病卽死矣라.
 虞曰經에 言十二經이 皆係於生氣之原하니 謂腎間動氣也라하니 何以言之오 謂兩腎之間動氣者 乃人之所受父母之原氣也라 腎者는 北方子之正位故로 聖人이 云原氣 起於子라하니 子者는 坎之方位요 坎者는 卽父母之元氣也니 謂乾爲天爲父 坤爲此爲母라 今坎之初六三은 乃坤之初六三也요 坎之九二는 乾之九二也니 謂乾坤이 交於六三九二而成坎卦하고 坎主子位하니 所以元氣 起於子也라 腎者는 水也니 黃庭經에 云 是水之精은 坎之氣이라하고 今言兩腎之間卽人之原氣也라하고 術士 云腎間曰丹田이라하고 亦曰隱海中에 有神龜하야 呼吸原氣故로 曰呼吸之門也라 人之三焦 法天地三元之氣故로 曰三焦之原이라하니 十二經脈이 憑此而生하니 乃曰十二經之根也라 今寸口傳受穀氣호대 其脈但平和나 奈人之生氣之原이 已絶於兩腎之間則十二經無所相依據면 雖寸脈平和라도 人當死矣니 所以喻木之無根本也라 腎者는 足少陰之經也니 左爲腎右曰命門이라 命門이 有穴하니 在背十四椎節下하고 又有志室二穴하니 在十四椎節下兩傍各三寸하니 有神守於命門하야 不令邪入志室하니 邪入志室이면 人則死矣라

《圖注》

啓元子 曰滋苗者는 必固其根이요 伐木者는 必枯其上이라하니라 十二經脈者는 兩手六部脈也라 原은 猶根本也라 本은 猶根也라 門者는 出入之處也라 五臟六腑 位於內十二經脈하야 見於外하니 內外之氣

皆從此生故로 曰根本이라 呼則陰出於斯하고 吸則陽入於斯故로 曰呼吸之門이라 腎屬水命門屬火하야 氣出於水火之中하고 三焦之氣 始於是故로 曰三焦之原이라 守邪之神者는 言其能達中立本育氣固形하야 使諸邪不能傷其身하고 守其內而衛其外也라 是氣也 非人根本而何오 豈有絶其根而莖葉茂者哉리오 是知腎間動氣一絶이면 寸口之脈雖平이라도 其死也 必矣니 此言脈之變也니 脈可以決死生吉凶은 乃其當理나 萬一有寸口脈平而死는 是生氣獨絶於內라 或云此言寸平而尺絶이라하니 愚則曰否也라 如此之言은 已發於十四難終寸口而一難之寸口也 兼關尺而言이니 玩經文이면 其義를 自見이라

《經釋》

平은 謂脈不病也라

十二經은 見上하니 係連屬也라 十二經之氣 皆從此出故로 謂之根本이라 腎間은 兩腎之中間也요 動氣는 氣所開闢出入之處卽所謂命門也라 其說이 詳三十六難中이라

吸入腎與肝故로 爲呼吸之門 卽所謂動氣 是也라 三焦與腎이 同候而腎屬下焦故로 曰三焦之原이니 謂三焦所從出也라 守邪는 未詳이니 或謂元氣既足卽邪不能傷故로 曰守邪라하니 未知是否라.

氣는 卽元氣也니 原氣在人이 猶草木之有根本하야 若草木根絶卽莖葉枯落하니 人之原氣 亦猶是也라

言內之生氣 已絶則雖其病之脈이 甚平而終不免於死也라.

(按)脈之流動은 氣實主之하니 未有生氣已絶而寸口脈尙平者라 況生氣之絶不絶이 亦必診脈而後見이니 若生氣絶而脈有平則生氣自生氣요 脈自脈하야 不相連屬이니 有是理乎아 若內經은 必無此語病也리라

《正義》

寸口脈平而死者는 非謂穀氣變見於寸口하야 以決死生이라 乃言脈之禮니 腎間動

氣 | 爲生氣之原이라 卽素問陰陽離合論曰 大衝之地을 名曰少陰者 | 是也니 大衝者 是 腎脈與衝脈合而盛大 故로 曰大衝이니 夫腎間則衝脈所出之地요 外當乎關元之分 而三焦氣化之原이요 十二經之氣 | 皆系於此라 故曰根本也라 挾任脈上至咽喉하여 以通呼吸 故로 曰呼吸之門이요 上系手三陰三陽爲支하고 下系足三陰三陽爲根 故로 越人이 引樹以設喻也라 是氣也 | 爲十二經之原 三焦之府니 主宣行營衛者也요 又爲精神所舍 元氣之所係也라 一名守邪之神者 是 以命門之神固守라야 邪氣不得妄入이니 入則死라 若腎氣先絶於內하면 其人 不病이라도 病卽危矣라

按腎間動氣컨대 爲十二經生氣之原이 統轄營衛者也라 蓋人身氣血之升降이 必由呼吸以循環하니 吸入天之陽하고 呼出地之陰이라 心主君火하야 吸入地氣하니 乃天陽也요 亦屬火하니 其氣 | 由鼻入肺歷心하야 引心火從心系 循督脈入腎하고 又從腎系以達下焦胞室하야 挾膀胱之下口라 其吸入天地陽氣 | 合心火蒸動膀胱之水하야 化而爲氣하야 循衝任而上하야 過膈入肺 而環出於口鼻하고 上出之氣 | 在口舌藏府之中 則爲津液이요 由諸氣街外出於皮毛하야 以薰膚潤肌則爲汗이니 此 | 火入水中化氣之理 卽乾坤相交三索之義 故로 曰人與天地參也라.

《闡注》

此章은 首明命門三焦一氣同原之義니 所謂生氣之原者 是 卽兩腎中間命門也라 呼出氣 | 起於此하고 吸入氣 | 納於此故로 十二經脈之氣 | 皆係於此하니 所以爲五臟六腑之本이라 十二經之根은 呼吸之門 三焦之原也라 人有此原氣하면 邪氣不能傷하야 其身이 守於內而充於外故로 曰守邪之神이니 若此氣絶은 猶草木之根絶 莖葉卽枯니 雖寸口脈平이라도 必死요 若此氣未絶이면 雖寸口脈無라도 亦不死也라 是卽十四難之上部無脈이라도 下部有脈이면 雖困無能爲

害也라.

《懸解》

氣根於水하니 腎間動氣는 是謂人身生氣之原이며 五藏六府之本이며 十二經脈之根이며 呼吸之門이며 三焦之原이며 一名守邪之神이라. 此氣者는 人之根本이니 譬之樹木이면 根絶則莖葉이 枯矣라. 寸口脈平而人死者는 水中生氣 | 獨絶於內也라. 守邪之神은 保固眞氣하야 捍禦外邪也라.

《匯海》

呂廣曰 氣衝之脈者 | 起於兩腎之間하야 主氣 故로 言腎間動氣라하고 挾任脈하야 上至喉咽 通喘息이라 故曰呼吸之門이라.

丁德用曰 腎間動氣者는 謂精神之所舍요 元氣之所係也라.

虞天民曰 或曰寸口既平이어늘, 奚疑其死리오 曰 此爲病劇形脫者論耳니라.

術士曰 腎間曰丹田 亦曰隱海니 中有神龜하야 呼吸原氣 故로 曰呼吸之門이라하고 又云 人之三焦 | 法天地三元之氣 故로 曰三焦之原이요 十二經脈이 憑此而生 故로 曰十二經之根也라.

箋正云 三焦 | 本合上中下三者言之나 然下焦는 乃根本之處 故로 曰三焦之原이라.

黃坤載註에 氣根於水하니 腎間動氣는 是爲人身生氣之原이요 五臟六腑之本이요 十二經脈之根이요 呼吸之門이요 三焦之原이며 一名守邪之神이라. 此氣者는 人之根本이니 譬之樹木컨대 根絶則莖葉枯矣라. 寸口脈平而人死者는 水中生氣 | 獨絶於內也니라.

《古義》

按前此諸論컨대 皆承第一二難等義에 取手太陰魚際却行一寸九分之脈位하야 以決病之死生하니 內經所謂飲食入胃 其精微氣變見於氣口 | 是也니 然則前諸篇은 皆主胃氣言而此所問難은 殊異乎彼하니 蓋胚胎之始에 天真之氣 | 自然寓於腎間命門之宮하니 是謂生氣之原이니 卽資始資生之妙 |

由是而兆亦不期然而然者하니 豈唯人耳리오 萬類 | 皆然하니 方生來에 待乳哺水穀之養하야 以成藏府經絡四肢百骸之全者는 皆以此氣之爲基故爾라 所謂呼吸之門 三焦之原이 是也라 夫寸口脈에 既謂決藏府之生死則此外에 復何求리오 然이나 今其脈平而死者는 何오 辟諸草木之在水瓶中이면 花葉이 雖蒨이나 其根既斷則寧有一時之榮 이라도 遂乃萎爾하야 失其本色을 可刮目待已라 或曰實如此篇則與前數者로 其論相反하니 扁鵲之言이 無乃矛盾邪아 且內經에 云得穀則昌 失穀則亡이라하니 而今穀入於胃하야 脈道以通이나 然其人卽死者는 何오 曰寸口決死生은 固其所也나 然又有不關寸口者하니 若夫暴疾卒倒是 無論已어 니와 雖其長病久患에 先脈而可前知者는 此一診已니 扁鵲이 特論診脈之外에 別有命門動氣之候는 此乃望而知之之最者로대 而其後諸家 | 紛紜無有底止하야 或以爲尺中脈이라하고 或以爲踝後少陰이라하고 又或以爲臍下丹田이라하니 果其言之是乎아 則尺既屬寸口中少陰卽是十二經之一이니 至于寸口脈平而死及十二經之根等語하면 窮矣요 且腎病臍下有動氣 按之牢若痛은 所謂邪與生氣之動於彼丹田이니 何以擇之 리오 可謂皆取其臆者니 予嘗以其所聞으로 巧諸內經하야 井取其說하야 別記藏之하야 顧其命門컨대 靈樞엔 唯謂目也라하고 他無所議而難經에 數言之하니 以予巧之컨대 內經中所謂耗散其眞 眞氣從之等語는 卽此是物이니 何以言之則以精神之外에 別有指眞者리오 故로 爾具載外記하야 竝不復贅 케하노라 本篇은 舊在第八難이나 然介諸寸口脈論中에 失其序次故로 移置此하니라.

(《古義》에는 二十二難에, 他本에는 八難에 位置함.)

《衰腋》

腎間動氣는 人所得於天以生之氣也라. 腎爲子屬水하야 萬物所始하니 乃天一之數而 火木金土之先也라. 是以로 人之生也 | 舍

原氣於腎間故로 曰 生氣之原이라 經에 命曰神機라하니 五臟六腑 | 賴之立焉하고 十二經脈이 基之運焉하고 呼吸出入이 由之行焉하고 三焦生化 | 資之施焉하니 實一身之根本也라. 原氣勝則死不能侵故로 又名守邪之神이요 原氣餒則病 原氣絕則死는 猶如木根絶而莖葉枯矣故로 寸口脈平而死者는 以腎間生氣 | 獨絶于內也라. 滑氏 | 曰 此篇與第一難之說이 義若相悖나 然各有所指也하니 一難에 以寸口決死生者는 謂寸口爲脈之大會而谷氣之變見也요 此篇에 以原氣言也는 人之原氣 | 盛則生 原氣絶則寸口脈雖平猶死也니 原氣는 言其體요 谷氣는 言其用也라.

【考察】

《本義》에서는 “此篇이 與第一難之說로 義若相悖나 然各有所指也니 一難에 以寸口決死生者는 謂寸口爲脈之大會而穀氣之變見也요 此篇은 以原氣言也니 人之原氣 | 盛則生이요 原氣絶則寸口脈이 雖平이나 猶死也니 原氣는 言其體요 穀氣는 言其用也라”하여 一難에서 寸口脈을 診斷基準으로 말하고 여기서 寸口脈을 否定하는 듯이 보이지만 體用關係로 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고,

《正義》에서는 “素問陰陽離合論曰 大衝之地를 名曰少陰者 | 是也니 大衝者는 腎脈與衝脈合而盛大 故로 曰大衝이니 夫腎間則衝脈所出之地요 外當乎關元之分 而三焦氣化之原이요 十二經之氣 | 皆系於此라 故曰根本也라 挾任脈上至咽喉하야 以通呼吸 故로 曰呼吸之門이요 上系手三陰三陽爲支하고 下系足三陰三陽爲根”이라하여 大衝之地와 腎間動氣의 類似性を 밝히고 이것이 氣血循環과 呼吸 및 三焦의 原動力이 됨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闡注》에서는 “是卽十四難之上部無脈 이라도 下部有脈이면 雖困無能爲害也라.” 하여 십사난과의 유사성을 밝히고 있고, 虞天民은 “或曰寸口既平이어늘, 奚疑其

死리오 曰 此爲病劇形脫者論耳라.”하여 寸 구맥이 正상이면서 죽는 경우의 임상례를 들고 있으며,

《古義》에서는 “扁鵲이 特論診脈之外에 別有命門動氣之候는 此乃望而知之之最者로대 而其後諸家 | 紛紜無有底止하야 或以爲尺中脈이라하고 或以爲踝後少陰이라하고 又或以爲臍下丹田이라하나 果其言之是乎아 則尺既屬寸口中少陰即是十二經之一이니 至于寸口脈平而死及十二經之根等語하면 窮矣요 且腎病臍下有動氣 按之牢若痛은 所謂邪與生氣之動於彼丹田이니 何以擇之리오 可謂皆取其臆者니 予嘗以其所聞으로 巧諸內經하야 井取其說하야 別記藏之하야 顧其命門컨대 靈樞엔 唯謂目也라하고 他無所議而難經에 數言之하니 以予巧之컨대 內經中所謂耗散其眞 眞氣從之等語는 卽此是物이니 何以言之則以精神之外에 別有指眞者리오 故로 爾具載外記하야 竝不復贅케하노라”라고 하여 腎間動氣란 望而知之하야 診斷할 수 있는 精神 또는 眞氣를 말한다고 하였다.

第九難(從脈象區別臟腑疾病)

【原文】

九難에 曰 何以別知藏府之病耶아 然이라 數⁽¹⁾者는 府也요 遲⁽²⁾者는 藏也며 數則爲熱이요 遲則爲寒이며 諸陽爲熱이요 諸陰爲寒이라 故로 以別知藏府之病也니라.

【解釋】

九難에 말하기를 臟과 腑의 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답이라. 脈이 數하면 腑病이고 脈이 遲하면 臟病이며 數하면 熱證이고 遲하면 寒證이다. 모든 陽은 熱이나고 모든 陰은 寒하므로 臟과 腑의 病을 區分할 수 있습니다.

(字句解)

(1) 數: 脈象의 名稱으로 통상 한 呼吸

동안 五회를 超過하는 脈을 말함. 《醫學入門》에는 “數來六至一吸呼”라 함

(2) 遲: 脈象의 名稱으로 통상 한 呼吸에 四回未滿의 脈을 말함. 《醫學入門》에는 “遲脈一息剛三至”라 함.

[各家註]

《本義》

凡人之脈이 一呼一吸爲一息이니 一息之間에 脈四至하고 閏以太息하야 脈五至를 命曰平人이라 平人者는 不病之脈也니 其有增減則爲病焉이라 故一息三至曰遲니 不足之脈也요 一息六至曰數이니 太過之脈也라 藏爲陰 府爲陽이니 脈數者는 屬府爲陽爲熱이요 脈遲者는 屬藏爲陰爲寒이니 不特是也라 諸陽脈이 皆爲熱하고 諸陰脈이 皆爲寒하니 藏府之病을 由是別之니라

《集註》

楊曰去來急促하야 一息過五至를 名數也요 呼吸에 三至하면 去來極遲故로 曰遲也라

呂曰府者는 陽故로 其脈數하고 藏者는 陰故로 其脈來遲라

楊曰陽脈行疾故로 病乃數하고 陰脈行遲故로 病乃遲나 此에 直云病在藏府하고 不顯其各則病莫知准의이라 若數而弦者는 病在膽하고 遲而弦者는 病在肝이요 餘藏府도 悉依本狀而遲數이 皆倣此也라

虞曰陽氣 | 亂則數하고 陰氣虛則遲則知藏府有寒熱之證也라

丁曰脈者는 計於漏刻에 其春秋二分에 晝夜五十刻則陰陽俱等故로 得平和나 冬夏二分에 晝夜不等하니 夏至之前엔 晝加六十刻故로 六十爲數故로 數則爲熱이요 冬至之前엔 夜加六十刻故로 陰多陽少하니 是爲寒이라 夫陰陽漏刻을 可定에 人自有損益故로 遲數有加하니 所以經云諸陽爲熱 諸陰爲寒이라

《圖注》

此言藏府之病脈也니 藏府不病이면 其脈平和하야 六府不遲不數하야 五至而已나

府病則加多하고 藏病則減少하니 數者는 陽脈이니 有餘而六至也요 遲者는 陰脈이니 不足而三至也라 脈數은 病在府요 脈遲는 病在藏이요 脈速은 陽有餘而府病熱이요 脈遲는 陰不足而藏病寒이니 諸陽脈이 皆有餘而爲熱하고 諸陰脈이 皆不足而爲寒이니 一數而熱 一數而寒 一病在藏 一病在府를 彰然明白이니 豈有難別者리오

《經釋》

數者腑也 遲者臟也는 腑屬陽 臟屬陰故也라

數則爲熱 遲則爲寒은 釋所以遲數之義라

諸陽爲熱 諸陰爲陰은 釋所以數屬腑 遲屬藏之義니 諸陰諸陽도 又推言之也라

(按)以遲數別臟腑는 亦未盡然이니 蓋腑病亦有遲而臟病亦有數者나 但言其所屬陰陽大概則可耳니 然終有語病이라.

《正義》

此는 分別藏府之病也라 人一呼一吸爲一息이니 脈亦應之하여 一息之間에 脈四至하고 閏以太息하여 脈五至를 命曰平人이라 平人者는 不病之脈也니 其有增減則爲病矣라 一息三至曰遲니 不及之脈也요 一息六至曰數이니 太過之脈也라 藏爲陰 府爲陽이니 脈數者 屬府爲陽爲熱이요 脈遲者 屬藏爲陰爲寒이요 又推言所以數屬府 遲屬藏之義라 故曰諸陽爲熱 諸陰爲寒也라 然此는 但言其陰陽大概耳니 未可泥也라

按府病에 亦有遲脈하고 藏病에 亦有數脈하니 以遲數으로 別藏府는 固不可執 而以遲數으로 分寒熱이 亦有未盡然者라 夫遲爲陰脈이니 醫者一呼一吸에 病者 脈來三至하여 去來極慢者 是也니 遲脈爲病이 皆因內傷生冷寒涼之物과 外涉水冰陰寒之氣 多中於藏 或中於府 或入於腠理하여 以致氣血稽遲不行 故로 主陽氣虛 氣血凝滯는 爲陰盛陽衰之候니 觀其遲之微甚而識寒之淺深하니 此는 道其常也요 若遲而有力하며 更兼滯滯하고 舉按皆然者 乃熱邪壅結하여 遂道不利하니 失其常度故로 脈反呈遲象이나 然未可造次요 必驗之於證하여 如胸脘飽悶 便秘溺赤이면 方是主熱之遲脈也라 若景岳所云傷寒初解에 遺熱未清하고 經脈未充하며 胃氣未復하면 脈必遲滑 或見遲緩이라하고 河間云 熱盛自汗吐利過極 則氣液虛損하여 脈亦遲而不能數이라하니 此又營氣不足에 復爲熱傷하여 不能運動熱邪하고 反爲所阻하여 失其輪轉之機 故로 緩慢而行遲也라 再遲而不流利 爲滯이요 遲而歇止爲結이요 遲濡浮大且緩爲虛니 似是而非 尤當辨認也라 數脈爲陽이니 醫者一呼一吸에 病者脈來六七至者 是也라 數脈主熱 爲病進 爲陰不勝陽 故로 脈來太過也나 然亦主寒者하니 若脈來浮數하고 大而無力하며 按之豁然以空하고 微細欲絶이면 此는 陰盛於下하여 逼陽於上이니 虛陽浮露於外 而作身熱面赤載陽이라 故로 脈數奕大無神也라 丹溪云 脈數盛大하며 按之濡而外有熱證을 名中寒이니 乃寒流血脈하여 外證熱而脈即數이니 亦此義也라. 越人이 祇言其常 而未言其變이나 經文이 簡奧하여 如此等概略之言이 甚多하니 學者 當細心領會요 不可刻舟求劍也니라

《闡注》

此章은 專重分別臟腑之病言이니 數脈은 腑也요 遲脈은 臟也니 數則腑病爲熱이요 遲則臟病爲寒이며 諸陽皆屬於腑爲熱이요 諸陰皆屬於臟爲寒이니 以此分別臟腑之病 無遺也라 後人이 議數則爲熱句는 似有未妥라하여 每見陽虛之病에 脈亦急數일새 投桂附而即平하니 殊不知數則爲熱의 數字 卽腑字也요 遲則爲寒의 遲字는 卽臟字也라 甚矣라 讀古人書호대 未經苦心體會하니 豈可輕議矣哉리오 此章에 但言臟腑不同하고 不言病與虛實故로 下章에 申明脈病診虛實之議하니라.

《闡注》

(闡注)에서는 十難에 三虛三實<他本에는 四十八難에 位置함>을 言及함)

《懸解》

府脈數 藏脈遲하고 數爲熱 遲爲寒이라.

《匯海》

滑壽曰 藏爲陰 腑爲陽이니 數脈者 | 屬府 爲陽爲熱이요 遲脈者 | 屬藏 爲陰爲寒이라. 不特是也니 諸陽脈皆爲熱 諸陰脈皆爲寒이니 臟腑之病을 由是別之니라.

日人玄醫曰 一息五至脈爲平人이니 其有增減 則爲病焉이라 減則遲 增則數이니 數則熱 遲則寒이라 寒病多在臟하고 熱病多在腑者는 腑는 陽也 表也요 臟은 陰也 裏也니 以邪論之 則邪之所在 | 其氣必實하니 在腑之陽實 故로 脈數하고 在臟하면 臟陰實 故로 脈遲요 以虛論之면 則臟虛則 內氣虛 故로 脈遲하고 腑虛則表氣亂 故로 脈微라 不特是也니 諸陽脈浮洪長滑等은 皆爲熱이요 諸陰脈微細沈澁等은 皆爲寒이니 蓋此論其大概요 論其詳則腑病亦遲하고 臟病亦數有之하니 不可一塗而取也라.

紀天錫曰 數爲邪實 病在腑則爲熱이요 遲爲陰 病在臟則爲寒은 此亦一說也라.

箋正曰 臟陰腑陽과 臟裏腑表는 本以一臟一腑로 自爲對待言之라.

徐大椿曰 以遲數別臟腑는 亦未盡然이니 蓋腑病亦有遲而臟病亦有數者나 但言其所屬陰陽大概則王耳니 然終有語病이라.

《古義》

按此難에 舉數遲二脈하야 以別藏府之病하고 前篇에 既揭浮沈二脈하야 分配四藏하니 此篇에 卽標數遲하야 以決藏府寒熱者하니 以浮沈虛實四字로 蒙此二脈하야 引伸以求其義則此難秘旨를 自然明矣라 所謂數者府 遲者藏 數則爲熱 遲則爲寒四句는 滑註에 無明解하고 諸家紛紛하야 猶未決者하니 蓋不深味之耳라 何者오 數未必得爲府病이요 遲未必得爲藏病이니 蓋有熱則府藏脈이 皆數하고 有寒則藏府脈이 皆遲故로 下文에 云數則爲熱遲則爲寒이라하니 由之觀之면 浮數則表熱 沈數則裏熱 虛數是陰虛內熱 實數是陽實發熱이요 遲脈이

亦各有浮沈虛實四變하니 藏寒府寒에 俱皆見焉이라. 或問此篇數遲二脈이 似在藏府有所印定하니 然則無藏病屬熱 府病屬寒之證歟아 答曰 數遲二脈을 分配藏府는 固其所也而病之變易에 脈與之化則藏亦見數 府亦見遲하니 何有定體리오 數遲易地에 可以見此篇之妙니라. 龐氏所謂引而不發者 | 是也라.

(《古義》에는 七難에 위치해 있고 他本에는 九難에 位置함)

《衷腋》

脈一息三至曰遲니 不足之脈也요 一息六至曰數이니 大過之脈也라 藏爲陰 府爲陽이요 脈數者 | 屬府爲陽爲熱이요 脈遲者 | 屬藏爲陰爲寒이니 不特是也라 諸陽脈皆爲熱이요 諸陰脈皆爲寒이니 藏府之病이 由是別之라 博이 按是는 言其大概耳니 不可拘一于此也라.

[考察]

이 篇의 問答이 매우 簡單하고 쉬운 듯 하나 臟腑의 病과 遲數脈을 配合함에 있어서 諸家의 說이 紛紛하므로 이에 集的으로 考察하였다.

數脈은 腑病을, 遲脈은 臟病을 主함에 따르는 說을 보면,

《本義》와 《圖注》에서는 別다른 說明이 없이 이 說을 따르고 있으며 《集註》에서 楊은 “若數而弦者는 病在膽하고 遲而弦者는 病在肝이요 餘藏府도 悉依本狀而遲數이 皆倣此也라”하여 難經의 뜻을 發展시켰고, 《關注》에서는 “後人이 議數則爲熱句는 似有未妥라하야 每見陽虛之病에 脈亦急數일새 投桂附而卽平하니 殊不知數則爲熱의 數字卽腑字也요 遲則爲寒의 遲字는 卽臟字也라”하여 數腑遲臟說을 固執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說들에서는 數腑遲臟이 반드시 맞지는 않는다는 見解를 밝히고 있는데,

《經釋》에서는 “以遲數別臟腑는 亦未

盡然이니 蓋腑病亦有遲而臟病亦有數者나 但言其所屬陰陽大概則可耳니 然終有語病이라.”하였고,

《正義》에서는 “然此는 但言其陰陽大概耳니 未可泥也라”하고 具體的인 臨床例를 아래에 들고 있는데,

첫째 遲脈이 반드시 臟病과 寒病만을 主하지 않는 例로서 “遲脈爲病이 皆因內傷生冷寒涼之物과 外涉水冰陰寒之氣 | 多中於藏 或中於府 或入於腠理하여 以致氣血稽遲不行 故로 主陽氣虛 氣血凝滯는 爲陰盛陽衰之候니 觀其遲之微甚 而識寒之淺深하니 此는 道其常也요 若遲而有力하며 更兼濡滯하고 舉按皆然者 | 乃熱邪壅結하여 遂道不利하니 失其常度 故로 脈反呈遲象이나 然未可造次요 必驗之於證하여 如胸脘飽悶 便秘溺赤이면 方是主熱之遲脈也라 若景岳所云傷寒初解에 遺熱未清하고 經脈未充하며 胃氣未復하면 脈必遲滑 或見遲緩이라하고 河間云 熱盛自汗吐利過極 則氣液虛損하여 脈亦遲而不能數이라하니 此又營氣不足에 復爲熱傷하여 不能運動熱邪하고 反爲所阻하여 失其輪轉之機 故로 緩慢而行遲也라 再遲而不流利 | 爲濡이요 遲而歇止爲結이요 遲濡浮大且緩爲虛니 似是而非 尤當辨認也라.”하고

둘째 數脈이 반드시 腑病과 熱病만을 主하지 않는 例로서 “然亦主寒者하니 若脈來浮數하고 大而無力하며 按之豁然以空하고 微細欲絶이면 此는 陰盛於下하여 逼陽於上이니 虛陽浮露於外 而作身熱面赤載陽이라 故로 脈數戛大無神也라 丹溪 | 云 脈數盛大하며 按之濡而外有熱證을 名中寒이니 乃寒流血脈하여 外證熱而脈即數이니 亦此義也라.”하고 “越人이 祇言其常 而未言其變이나 經文이 簡奧하여 如此等概略之言이 甚多하니 學者 | 當細心領會요 不可刻舟求劍也라.”하여 診斷에 있어서의 融通性을 主張하였다.

《古義》에서는 “下文에 云數則爲熱遲

則爲寒이라하니 由之觀之면 浮數則表熱 沈數則裏熱 虛數是陰虛內熱 實數是陽實發熱이요 遲脈이 亦各有浮沈虛實四變하니 藏寒府寒에 俱皆見焉이라.或問此篇數遲二脈이 似在藏府有所印定하니 然則無藏病屬熱 府病屬寒之證歟아 答曰 數遲二脈을 分配藏府는 固其所也而病之變易에 脈與之化則藏亦見數 府亦見遲하니 何有定體리오 數遲易地에 可以見此篇之妙라.”하여 難經原文을 그대로 認定하면서 脈의 變化를 說明하여 數腑遲臟이 반드시 맞지 않음을 말하고,

《哀腋》에서는 “博이 按是는 言其大概耳니 不可拘一于此也라.”하여 數腑遲臟을 否定하고 있다.

IV. 結語

본 研究를 통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七難에서는,

1. 期日에 따른 脈象의 表現은 《素問·至眞要大論》 및 《平人氣象論》과 大同小異하지만 三陰三陽의 表現이 각각 다른데, 이 篇에서 三陰三陽을 나눈 方法은 陰陽始生의 淺深에 根據한 것이다.

2. 三陰三陽의 期間을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두 가지가 提示되고 있는데, 冬至後 甲子日을 基準日로 삼아 그 後 甲子日까지를 한 期日로 구분하는 경우와 冬至日을 基準으로 하여 一年을 大略 六等分하여 期日을 나누는 方法이 있는데 後者가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3. 診斷을 함에 있어서는 正와 變을 잘 把握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때 正을 잘 알아야만 變을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正脈의 形成에는 사람의 體質 年齡 性別 및 當時의 氣候環境等이 參考가 될 것이다. 이 篇에서는 氣候에 따른 人體 脈의 正常

的 反應을 밝히므로서 病的 變化를 알게 하고자 하는데 그 趣旨가 있다고 思料된다.

八難에서는,

1. 一難에서는 寸口脈을 診斷基準으로 提示하였는데 여기서는 寸口脈에 依支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였으니 一難은 穀氣(胃氣)를 爲主로 말한 것이고, 本難은 原氣를 爲主로 말한 것이다.

2. 十四難의 “上部有脈 下部無脈”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本難의 狀況이 더욱 病勢가 甚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3. 本難에서는 平凡한 診斷의 경우가 아닌 大病後나 久病 或은 매우 危急한 疾患이 해당되며, 이 때에 醫師가 預後를 判斷함에 錯誤가 없도록 警戒한 글이라고 思料된다. 寸口脈이 아무리 正常的이라 하더라도 患者의 神色과 原氣가 좋지 않다면 결코 預後를 肯定的으로 判斷해서는 안 될 것이다.

九難에서는,

1. 數脈이 腑病을 主하고 遲脈이 臟病을 主하는 것은 普遍的인 경우이고, 腑病에도 遲脈이 臟病에도 數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說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朴 旻, 國譯瀕湖脈學四言學要, 서울, 大星文化社, 1992.

2. 成樂箕,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90.

3. 李晚熙, 黃帝內經靈樞九鍼十二原에 對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4.

4.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校大學院, 1993.

5.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서울, 傳統文

化研究會, 1990.

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7.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8. 唐淵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9. 唐宗海, 中西匯通醫經精義, 中西匯通醫書5種, 千項堂書局,

10. 勝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1. 徐大椿, 難經經釋, 徐靈台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12.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3.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14.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5. 王九思, 難經集注, 臺北, 臺北中和書局, 1985.

16. 王洪圖, 難經, 北京, 春秋出版社, 1988.

17. 李德新, 氣血論, 遼寧,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0.

18. 李 挺,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6.

19. 張介賓, 類經, 서울, 圖書出版鼎談, 中國醫學大系44卷,

20.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大孚書局, 1976.

21. 丁錦, 古本難經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22.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2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4.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25.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

版社, 1990.

26. 黃維三, 難經發揮, 臺北, 中國醫藥學院, 1989.

27. 加藤宗博, 盧經衷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28.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